

과거와 현대 연결...삶 근원 재조명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미디어아티스트를 찾아서

권승찬

광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는 '예술 + 산업'이라는 4차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문화경제를 천명하고 있다. 한 축을 형성하는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만나본다.

편집자주

미디어아트로 버려진 공간 재해석
하정웅청년작가상 등 작품성 인정

21일 비엔날레 작가탐방 작업실 공개

“네온사인 조명 등 미디어 아트를 통해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있고 우리의 삶과 근원의 문제를 조명해 보는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권승찬 작가는 특유의 독창적 해석으로 소외받는 이웃, 버려진 공간을 네온사인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조명하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회화부터 사진, 설계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섭해 폭넓은 작품세계를 펼쳐낸다.

권 작가는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시대와 장소의 단절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갈수록 잊혀져가는 전통과 버려진 쓰레기 등을 활용해 고루한 옛 것으로만 치부해 잊어버린 과거의 역사와 함께 공간과 공간, 전통과 현대, 세대와 세대 등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공미술-아트팩스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 2016년에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지하공간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구성해 호평을 얻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역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광주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6년 평등 무등도요에 작업실을 마련한 이후 그만의 작품세계를 확대하고 있다.

무등도요는 고려청자를 재현해 도자문화 전승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무형문화재 고조경(1939-2007) 작가의 작업장이자 전시실이다. 그는

네온사인과 조명 등 현대 매체를 활용해 조경정 선생의 정신성과 무등도요 공간에 대한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작품을 구현하고 대중과 만나고 있다.

오는 3월 1일까지 선보이는 '권승찬 있다 이후 무등도요-빛전'은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로 초대돼 하정웅미술관에서 선보인 작품의 연장선이다. 권 작가는 미술관과 광주 도시 외곽의 무등도요를 인터넷과 CCTV를 통해 실시간 연결한 작품을 선보이는 '권승찬 있다' 전을 진행했다.

이번 빛전을 통해 권 작가는 30년된 흙과 가마 등 과거가 그대로 현존해 있는 7개 장소에 미디어아트를 콜라보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LIFE IS LONG BUT THERE IS NOTHING TO DO' 등 텍스트와 권 작가가 선보이는 트레이드 마크인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깔의 형광등과 복잡한 전선 등을 그대로 노출한 미디어 설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21일에는 광주비엔날레가 매달 지역 작가탐방에 나서는 '작가 스튜디오 탐방'이 전개돼 그의 작업실과 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는 "현재는 중국 북경 등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럽 등 해외에서 초대전도 확대해 나가고 싶다"며 "과거와 전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추진해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권승찬 작가



전시 중인 '빛' 전의 한 모습.

베트남 이주여성 '억울한 죽음' 작품으로 승화

자우녕 작가 22일부터 광주여성재단

남편에 살해당한 베트남여성 삶 다투

“2007년 7월 4일 한국에서 한 여성이 죽었다. 19살, 베트남 여성, 이주결혼한 자 등으로 분류돼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5장의 편지로 인해 그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름은 후인마이,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다. 누굴이 8개나 부러져있었다.”

후인마이의 죽음이 미술전으로 재조명된다.

광주여성재단은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단 8층 여성전시관에서 자우녕 작가의 기획전 '유리병의 편지'를 진행한다.

오프닝은 22일 오후 4시.

광주여성재단의 기획전시 공모전에 선정돼 추진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결혼여성의 유서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인 약자의 애환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후인마이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19살의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뒤 지난 2007년 남편의 구타로 살해돼 많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충격을 전해왔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타국으로 떠나는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삶은 폭력과 단절로 점철됐다. 행복을 찾아 한국으로 팔려오듯 왔지만 결국 남편의 폭행으로 숨을 거둔 베트남 소녀의 마지막 편지는 유서가 돼 남았다.

후인마이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후인마이를 들여다본다. 후인마이의 유서를 작품화한 영상 '후인마이의 편지', 한국여성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합동결혼식을 다룬 '당빈 풍경', 프랑스로 이주한 터키인들의 축제를 통해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의 폭력을 다룬 '페스티벌', 허물어지기 쉬운 이주여성의 가정과 집을 상징하는 설치작품 '판타스틱 하우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한국에 뿌리 내린 수많은 후인마이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주여성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전할 예정이다.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상생(相生)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이번 전시는 전해주다.

자우녕 작가는 "다문화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상징하는 여인 '후인마이'를 기리는 동시에 이 같은 편견의 또 다른 희생자들의 삶과 우리네 가부장적 폭력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우녕 작가는 프랑스 마르세유 조형예술대학 출신으로 광주를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나 '여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삶을 다룬 작품 '유랑하다' (2008)와 프랑스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은 단유' (2008), 다큐멘터리 '날아가는 학선이 구름 밑의 신선아' (2005년), '이주의 시대' (2010년) 등의 작품이 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자우녕 작, 페스티벌(Festival) 2

드로잉 콘서트 보며 지친 삶 '힐링' 예술공간 집, 24일 '반복되는 밤'



드로잉콘서트
반복되는 밤

고즈넉한 한옥 공간에서 드로잉 작품과 음악이 결합된 공연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동구에 자리잡은 예술공간 '집'은 오는 24일 오후 8시 '드로잉 콘서트-반복되는 밤'을 개최한다.

예술공간 집, 24일 '반복되는 밤'
음악·회화·영상 예술가 3인 클라보

이번 '드로잉 콘서트'는 지역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예술 행보를 견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태승, 일러스트레이터 윤연우, 비디오 제작가 김철휘씨 등 예술가 3인이 총괄 기획해 만든 콘서트다.

밴드 '김과리'의 기타리스트이자 보컬인 싱어송라이터 김태승씨는 자신의 일상의 자신의 일상 이야기가 담긴 첫 솔로 1집 'I'm not ok'에 실린 11곡의 라이브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또 윤 작가의 다양한 드로잉 작품들이 김철휘 씨의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함께 제작돼 상영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평소 지인이었던 김태승씨와 김철휘 씨가 윤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관심있게 지켜보다 인연을 맺어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윤 작가는 "지난 2016년 알게 된 인연이 예술가 3인의 각각의 색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콘서트를 갖게 됐다.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3명이 만나 별이 있는 무대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무대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연 문의 062-233-3342.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세계 정상 재즈뮤지션 광주서 만나요

해외서 각광받는 '조윤성 with 지혜리'
살롱드 재즈서 24일 오후 7시30분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과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재즈보컬리스트 이지혜리의 듀오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선보인다.

24일 오후 7시30분 동구 예술의 거리 살롱드 재즈에서 선보이는 '조윤성 with 지혜리'가 주인공이다. 이번 공연은 전문적이고 공들인 기획공연으로 마니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살롱드재즈가 특별히 마련한 무대다.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대학 클래식 피아노학과와 미국 버클리음악대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에서 컨서바토리 재즈학을 전공했다.

동양인 최초로 '마르시알 솔랄(Martrial Solal)' 재즈 콩쿠르에 입상하여 유럽 무대에 혜성처럼 데뷔한 재즈계 최고의 뮤지션이다.

그는 재즈 거장 '허비행록'에게 발탁돼 '델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Theonious Monk Institute of Jazz)' 멤버로 활동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지혜리는 맨해튼 음대에서 재즈작곡으로 석사과정을, 버클리음대 재즈작곡/보컬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KASF, OTEFE foundation, CJ 문화재단, 높은 뜻 장학재단, 버클리 아시아투어, 맨하탄 음대로 부터 장학금을 받는 등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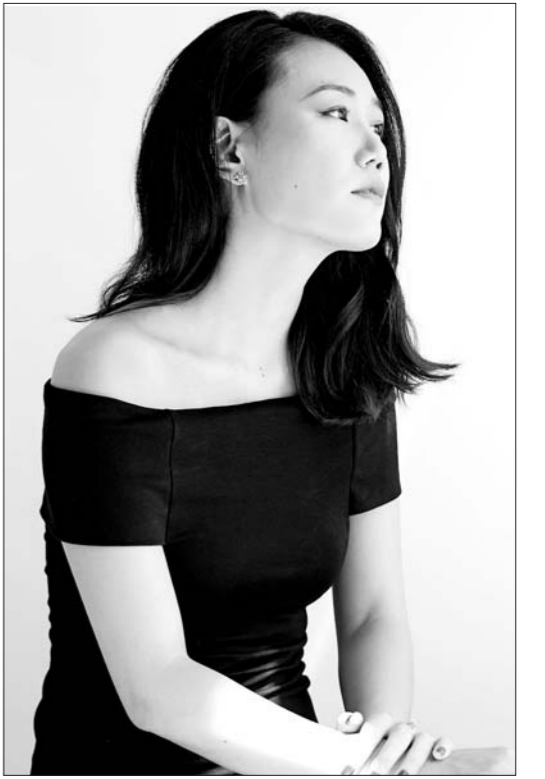
재즈작곡 최고상인 듀크엘링턴 어워드 2회연속 수상을 비롯하여 길에반스 어워드·아웃스탠딩 퍼포머 어워드·보컬 디파트먼트 어워드·2018 BMI찰리파커 프라이즈 등을 수상했고 윈튼 마살리스가 이끄는 링컨센터 재즈오케스트라와의 작업, 뉴욕타임즈에 음악이 소개되는 등 재즈의 메카 뉴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있다.

살롱드재즈 박수지 관장은 "이번 '조윤성 with 지혜리' 공연은 광주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최정상급 뮤지션의 공연으로 재즈를 좋아하는 매니아와 재즈를 깊게 알고 싶은 시민들이 꼭이 무대를 찾아와 주셨으면 한다"며 "작년 '궁동재즈살롱, 무비무밥 재즈학교'에 이어 올해에도 살롱드 재즈는 많은 기획 공연과 다양한 재즈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광주지역 재즈문화에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



조윤성



지혜리

광주 서구문화원, 제1회 창작희곡 공모...대상에 150만원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제5회 광주시민연극제 추진을 위한 창작희곡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광주의 수많은 역사 문화자원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펼쳐내기 위한 '제1회 광주시 창작희곡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제5회째를 맞이한 광주시민연극제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의 이야기, 역사 속의 숨은 이야기 등 소재에 관계없이 의향, 예향, 미향의 광주를 드러내는 작품을 발굴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원자격은 전국의 신인 및 기성작가 등 제한이 없으며 인물, 자연, 역사, 축제 등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소재로 90분간 공연할 수 있는 분량의 순수 창작희곡이면 된다.

작품 마감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희곡 5부를 제출하고 파일은 별도 제출이다.

대상은 1편에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50만원이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광주 서구문화원이 광주의 문화자원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펼쳐내기 위해 창작희곡 공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광주시민연극제 출품작 중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광주문화재단이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는 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10개 참여단체는 1차 지원으로 각각 10개월 동안(최대 2년 지원 예정) 총 1천800만 원의 청년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직무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인력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윤기 대표는 "추진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에게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단단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1곳당 국비 3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3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지역에 공공이유가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2018년 경북 포항시를 비롯해 4개 지역에 대한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는 18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쇠퇴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1곳당 국비 3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종 사업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한다.

뉴스